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참고 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시 부터 보도가능	배포	2017.2.13(월)
책임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김연준(02-2100-2970) 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담당 최성일(02-3145-7420)	담당자	김민하 사무관 (02-2100-2972)  김용태 팀장 (02-3145-7425) 핀테크 지원센터 손정환 팀장 (031-8016-1169)	

## 제 목 : 조선일보, '17.2.13일자 「금융사 팔 비틀어 만들고... 외면받는 '핀테크 지원센터」 제하 기사 관련

### < 기사 내용 >

- 조선일보 '17.2.13일자 「금융사 팔 비틀어 만들고...외면받는 '핀테크 지원센터」 제하 기사에서
  - “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든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,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구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,
  -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‘2017년도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예산 분담안’을 통보하였다.”고 보도

### < 해명 내용 >

- ① 핀테크 지원센터는 설립이후 '16.12월까지 500여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·법률·특허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였으며,
- 총 19회 국내·외 핀테크 Demo day를 개최하여 80여개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을 소개·시연하고, 38개 기업이 금융사와 멘토링을 체결하여 연계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

- 일반국민, 핀테크 기업, 금융회사,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만족도 64.4%, 추천의향 76.8% 등 핀테크 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임
- \* (주관) 금융위·핀테크 지원센터, (조사기관) 한국리서치, (기간) '15.11.2~13, (대상) 일반국민(1000명), 이해관계자(106명), 전문가(18명)
- 앞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업계 수요를 토대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, '17.3월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

- ② 핀테크 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, 운영위원회는 11개 금융권 협회와 유관기관\*으로 구성됨

\* 은행연합회, 금투협회, 생보협회, 손보협회, 여전협회, 신용정보협회, 거래소, 예탁원, 코스콤, 금결원, 금보원

- 금융위에서는 금융회사에 예산 분담안을 직접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, 핀테크 지원센터 확인 결과, 대통령 행사에 예산이 지원된 바 없음
- 참고로, 호주(Stone&Chalk), 일본(Finolab) 등 주요 외국에서도 핀테크 지원기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산·투자 지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(공제)	*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